

제 134호 새 학기 다짐 4

새 학기 다짐 1, 2, 3대로 희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줄 신선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긍정적인 말투로 대하려는 다짐을 하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강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반이나 빈 강의실, 강의 도중에 짙게 들어오는 지각생들, 의기소침한 학생의 태도, 허공을 헤매는 멍한 눈, 앉아있기가 지겨워 주리를 트는 몸, 강의실이 자기 집 안방인냥 책상에 엎어져 자는 학생... 이런 모습을 보는 순간 새 학기 다짐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오릅니다.

"희망??? 짝이 노랗다, 노래!" "긍정적인 말투??? 욕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신선함??? 강의 빨리 끝내고 나가서 회나 먹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노에락을 초월한 도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주고받는 쌍방향 관계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보아야 더 주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줬을 때 되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시큰둥해지기 쉽지요. 그러나 교육자는 일반인과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새 학기 마지막 다짐으로 "무조건 준다"를 고려해 볼만합니다.

새 학기 다짐 4. 무조건 준다

강의실에 똑똑한 학생들로 가득 차있고,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서 강의 내용에 귀를 기울인다면 것처럼 기분 좋은 것이 없겠지요. 이런 학생들을 하루 종일 가르쳐도 지치지 않습니다. 충명과 열기로 가득 찬 강의실은 교수님께 에너지를 되돌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사실 교수님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진정 필요한 학생들은 아둔하고 자기가 강의실에 왜 와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입니다. 희망을 못 느끼는 학생은 교수님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야단만 맞던 학생은 교수님의 긍정적인 말투가 필요합니다. 머리 속이 멍한 학생은 교수님의 신선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마음 다스리는 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 기대하면 실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실망하면 마음이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소극적 자세는 교육자의 말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그 귀중한 모든 것을 학생에게 주실 때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무조건 주셔보십시오. 아마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고 긍정적인 말투와 신선함을 지키기가 한층 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무조건 주라고 해서 가르침이 "짝사랑"과 같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짝사랑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짝사랑은 초조하고 처절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밀지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짝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주고 또 줘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가

르침이야말로 가장 느긋하고 뿌듯한 사랑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가르침을 "약수"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약수는 두 손이 모일 때 가능하 듯이 가르침은 배움이 있을 때 존재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준다"는 뜻은 손을 내 밀고 홀로 흔들어대는 그런 헛된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항상 먼저 내민다는 뜻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의 손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내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호부터는 학생들이 손을 내밀도록 유도하는, 즉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 쓰겠습니다.

<<편집 코너>>

"마음 다스리는 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양의 지혜가 한 장에 담긴 짧은 글입니다. 글 전체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답장(reply)"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내용 없이 곧바로 "보내기(send)" 버튼을 누르십시오. "마음 다스리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조벽, 2000